

월요광장



채희윤 광주여자대학교 교수·소설가

하나, 사법(司法) 변형에서 '검사 평가제'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그 뉴스를 접한 동료 교수는 '판사 평가제'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법계는 문제투성이라고 비판강해했다. 외인(外人)인 내가 보아도 우리 사회를 뒤흔든 굵직한 사안들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하는 검찰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 송방망이 판결하는 법원이나 충분히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러자면 이유로 전공자들에게까지 패념을 듣는 게 당연할 법하다.

아무튼, 변호사들이 '검사 평가제'까지 들고 나선 것을 보니 우리나라 사법계 문제의 심각함이 엿보인다. 누구 말대로, 법 조항의 적용에 있어 한없는 고무줄 기준과, 양심(良心)을 양심(兩心)으로 부당 적용하는 사법 관리들이 많다는 반축을 들

법률의 간극, 사법(司法)과 사법(事法)

을 때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서 소외당한 기분이 들어 나 같은 소시민은 슬프다.

도덕경에 나오는 '사람은 땅의 법칙을 본받고, 땅은 하늘의 법칙을, 하늘은 도의 법칙을, 도는 자연의 법칙을 본받는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는 말에서 보듯이 법은 동사로서 원래 '본받다'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사법인들은 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시작, 법률(法律) 소설가이므로, 그에 알맞게 엉뚱한 일들에 대해 상상하기를 나는 즐긴다. 공자(孔子)의 직책 사구(司寇)가 현재의 법관이란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떤 법관이었을까를 생각했다. 그러면서, 불현듯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법률이라는 단어였다. 아마, 법(法)과 영(令) 같은 억압적 단어에 율(律)을 붙인 것은 공자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아니 틀림없이 맞을 것이다.

예악(禮樂)은 공자의 기본이었다. 예악이 무너진 곳에서야 비로소 법(法)·영(令)·규(規)가 필요하고, 그것은 인간 사회 혼탁의 시작이라고 그는 실했다. 그런데 왜 율(律)일까? 두말할 필요 없다. 무도(無道)와 무질서(無秩序)에서의 도와 질서는 일종의 형식인 것이다. 율은 악의

기본이고, 악은 예를 완성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악이 되기 위해서는 형(刑)을 필요로 한다. 형식 없는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은 사실 형식이고,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폼'이다. 이처럼 율은 정해진 리듬이고, 리듬은 조화를 근본으로 삼는다. 서양에서 젠틀(Gentle)의 기본인 '모더스 비벤디'(Modus vivendi)와도 같다.

도를 잃은 세상의 무질서를 그나마 바로 잡기 위해 법이 필요하지만, 법은 반드시 그 운용에 있어서 '예의 기본은 조화인 율을 지향해야 한다'는 공자의 생각이 법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이게 내 상상의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법관은 반드시 법을 조화롭게 적용해야 한다. 거기엔 사법(司法)만 아니라 사법(事法)도 필요하다.

둘, 사법(事法) 몇 년 전, 우리 아파트 단지 뒷길에 우회해서 귀가하는데,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플래카드를 보았다. '우리는 법정에서 승리했다!!' 느낌표를 두 개나 붙인 채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지나치게 크고 붉고 검은 두 색의 글씨는, 두 개의 국제적 비엔날레를 갖는 광주의 디지털 수준으로 볼 때 난감하고 의아했다.

지금도 그 난감은 남아 있으나, 곧 의아심은 풀렸다. 플래카드 아래 작게 쓰인 '*** 고물 수집소 / ** 불고기 식당'이라는 글씨를 봤기 때문이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2년 늦게 입주해서 나는 몰랐지만, 아내의 말에 의하면, 법새와 소음, 그리고 미관상 이유로 아파트 건설사와 1년 넘게 법적 소송을 하고 있었던단다.

아파트 입주주민들은 분노했다. 돌밖에 안 되는 가계의 피해와 500 세대 넘는 사람들의 피해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오판이라고 판사를 비판했다. 그에 대한 분노 표출로, 여기에 옮길 수 없는 수위 높은 발언들을 아파트에 붙여 놓았다. 물론 플래카드에 비해 엄청나게 조라한 외형이었지만, 난 아내에게 한마디만 했다. "뭘, 그 분노도 살아야 하는데, 잘 된 판결이구만."

지금도 어김없이 새벽 여섯 시만 되면, 고물수집소에서는 집게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겨울을 제외한 계절 내내 울게 풍기는 노린내가 순간순간 불쾌하기도 하다. 그러나 폐지와 병 등을 밀치에 끌고 고물상에 나타나는 노인들을 보면서, 법은 역시 우리 같은 소시민을 위해 봉사할 때 아름다울 수 있고, 가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한다.

법조칼럼



유진승 광주지검 검사

주말에 초등학교 아들이 일기 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명령으로 무려 4일치의 일기를 몰아 써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변신 자동차를 사준 것도 시간이 좀 지나야 날이 떨어진 상태라 이점이 점수를 따볼 생각으로 짐사람한테 "오늘부터 잘 쓰면 되지 지난 일기까지 한꺼번에 쓸 필요 있겠느냐"고 건의하였더니, 짐 사람은 "매일 쓰라는 것은 아는데 그 동안 계속 안써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로 아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해석하면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도 있었다'는 취지로써 저와 아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일기쓰기에 대한 단상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린아들이 방학일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방학 숙제에서 일기쓰기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요. 사실 일기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작업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일 중 하나이고, 일부 비판론도 있습니다만 교육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심리학, 경제학계 등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선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합리적인 이성이나 도덕관념이 아니라 동물적인 욕구나 감정 또는 원시시대 때부터 형성된 '투쟁-도피 반응'(fight-flight reaction·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상에 대해서 맞서 싸우거나 회피도록 준비하는 각성 반응)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형사사건에서는 위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작년 세월호 사건 때 선장, 기관사 등 승무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조의무를 방기한 채 일사분란하게 도주하는 모습

은 투쟁-도피 반응 앞에서 직업윤리가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수년 전 서울에서 있었던 유명한 '왕따' 연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연구는 심하게 왕따 당하는 학생이 있는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교실 상황을 관찰하는 실험으로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은 잠깐이었고 곧 평소 상태로 돌아와 왕따 학생을 괴롭히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카메라(연구진)는 철저히 관찰자의 입장으로만 일관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촬영 내용에 학생들이 공개하였는데, 가해학생들은 녹화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평소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 만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인식의 틀에 따라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또는 방어적으로 형성된 자아상에 불과하고, 카메라를 통하여 어과없이 비추진 자신은 경악할 만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왕따 행위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즉, 왕따를 해결한 것은 선생님의 잔소리나 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냉엄한 인식이었던 것이지요.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폴론신전 기둥에 적혀 있는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는 경우를 즐겨 인용하며 진정한 사유의 출발은 자신의 상태(무지)를 철저히 인식함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성숙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일기쓰기는 어린이들보다 어른들한테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발명한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도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과 애플사의 모든 기술을 바꾸겠다'고 언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정작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며칠 전에 처음 구입해 보니 수십개의 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일기장 앱은 없더군요(물론, 저도 새로 찾아서 깔지는 않았습니다). 꼭 일기쓰기가 아니라라도 스스로를 성찰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기고



박석주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디즈니랜드를 세운 윌트디즈니는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하면 꿈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전남의 독서토론열차학교 유라시아 대장정이 그렇다. 일반적으로 '열차'하면 낭만적인 생각이 들겠지만,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열차학교 유라시아 대장정'은 웬지 어렵고 힘들겠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인지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업이었다. "정말 갈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에서 "정말 갔다왔네"라는 놀라움으로 변했다. 우리는 다녀온 것만으로도 이미 꿈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민체 전남도교육감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를 관람하고 단허진 공간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곧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겠

전남 독서토론열차학교 유라시아 대장정을 마치고

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광활한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독서와 토론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독서토론열차학교 유라시아 대장정이 탄생한 배경이다.

시베리아 횡단 9228km는 무안에서 서울까지 열차로 26번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엄청난 거리다. 학생들의 피로도 줄이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3일 동안 열차를 탄 후 우리 민족의 시원지라 알려진 바이칼호수와 알촌섬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일 간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했다. 모스크바에서 1박을 하고 다시 고속열차(살싼)를 타고 마지막 기착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열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모든 숙식은 열차 안에서 해결했다.

가나인 여정이기도 하지만 단허진 공간이기 때문에 열차 속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열차학교에서는 세 가지 주된 교육활동이 이뤄졌다. 하나는 독서토론 활동으로 미리 알아야 할 책과 독서토론 주제들이 과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열차에서는 주로 토론 활동과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하는 활동이 많았다.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과 공감적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통일역사 교육활동으로 항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화화와 다짐, 민족발전지에서의 통일기원 행사 등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의를 키울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단체활동 속에서 나눔과 협동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활동이 었다.

이번 대장정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육은 보고 듣는 것보다 실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비좁은 공간인 열차라 알려진 바이칼호수와 알촌섬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일 간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했다. 모스크바에서 1박을 하고 다시 고속열차(살싼)를 타고 마지막 기착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열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모든 숙식은 열차 안에서 해결했다.

이번 대장정에 대한 학생들의 첫 반응은 학교 밖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설렘이었다. 또 토론활동과 과제해결 과정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만남을 가진 것을 매우 좋아했다. 학생들의 반응 중 중요한 하나는 자신의 진로와 진학문제 등을 전문가 선생님과 이야기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이번 대장정 가운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지만 처음 진행한 사업인 만큼 어려움도 따랐다. 자문교수의 도움도 있었

지만 대규모 학생들이 함께 이동하고 생활해야 하는 만큼 어려움도 컸다. 우선 교육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다보니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아 자신만의 사유의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해 보는 여유 시간이 부족했다.

앞에서 성과와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지만 전남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키우기 위한 이런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예산 관계상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선발에 있어서도 성적 위주에 대한 지적이 있는 만큼, 각종 분야의 특기가 있는 학생들도 선발해서 이런 학생들에게도 글로벌 의식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이번 대장정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15박16일의 대장정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보람이자 성과다. 계속 달려 베틀린과 파리를 거쳐 런던까지 달려가고 싶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유라시아가 아직도 좀더.

이번 전남의 독서토론열차학교는 꿈을 현실로 바꾸어 놓은 대역사였다. 이런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전남도민들을 위해서도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치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社說

교통사고 다발 지역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6일에 1건 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광주시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다. 교통사고 전국 최다 발생 지역이다. 이곳 외에도 광주·전남에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많다. 광주에서는 윤암동 윤암사거리나 백운동 백운광장 그리고 전남에서는 목포시 옥암동 해양항만청 사거리와 무안군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 사거리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몇 년째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들 지역을 '교통사고 블랙홀'로 방치할 것인지 답답하다.

최근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서구 계수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 대구 감삼동 죽전네거리(51건), 서울 마포구 공덕 오거리(50건) 등을 제쳤다. 이미 계수사거리는 지난 2009년 교통사고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

다. 교통사고 건수도 ▲2012년 40건 ▲2013년 45건 ▲지난해 5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실 계수사거리는 왕복 10차선 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출퇴근 시간(2시간) 차량 통행량만 2만 대가 넘는 광주 지역 최대 혼잡 도로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2013년 해당 교차로를 구조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두고도, 인근에서 진행되는 극락강 유역하수관거공사를 이유로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다. 잦은 사고는 언제든 대형사고로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문제를 빨리 알고도 수년째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전문가들은 각 차선별 진행 방향 표시(직진·좌회전) 도색을 수시로 하고 차선별 진행방향을 알리는 신호등을 도입하기만 해도 상당수 교통사고는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당국은 한시바빠 교통사고 다발 지역 교차로의 시설 보강 등 교통구조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악마의 눈 '몰카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최근 국내 한 유명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에서 촬영된 '몰카'(몰래 카메라) 동영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여성들은 은행, 대형마트, 백화점, 패스트푸드점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카 촬영에 노출되고 있다. 언제 어떻게 찍힐지 모르니 몰카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광주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이성의 신체를 촬영한 몰카 범죄는 50건이나 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8건, 14건, 12건이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가히 폭증세라고 할 만하다. 여기에 본인도 모르게 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아 이를 고려하면 수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등에 몰카 촬영 영상이 올라오면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

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고 관련 웹 사용자도 급증해 몰카 범죄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데 반해 경찰의 수사기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정의 디지털 증거 분석 건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고작 1명뿐이라고 한다. 인터넷 등에서 진행되는 사이버 범죄도 역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수사력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몰카는 흔히 '양심을 버린 기술이 낳은 악마의 눈'으로 불린다. 사소한 범죄로 여겨 방치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몰카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현재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몰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 아울러 몰카 사진이나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일본에는 높이 137.5cm의 불가사의 한 미륵불이 있다. 교토에 있는 교류사(興隆寺)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그것이다. 일본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려 할 때 일본이 단골로 내세우는 국보 중 하나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 미륵불에 대해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어떤 조각 예술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며, 감히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살아 있는 예술미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하고, 가장 원만한 모습, 가장 영원한 모습의 표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목불은 마이니치 신문사에서 발간한 '태후의 불상' 시리즈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수작이다. 일본은 이 목불을 교류사 경내의 '영보전'에 국전히 모셔 두고 있다.

일본 국보 1호인 이 미륵불은 그러나, 오래전 신라에서 건너간 것이라는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9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과 비교하면 별 일란성 쌍둥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물론 일본은 이 같은 주장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 미륵불의 재질이 우리나라 토산의 적송(赤松)으로 밝혀지면서 더 이상 '일본 고유의 불상'이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게 됐다.

말마 저, 14세기 전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가 일본 도쿄에서 발견됐다. 이 불화는 특히, 현재 전 세계에 3점밖에 없는 '병황 무늬 배알'이 그려진 희귀본 수 없는, 살아 있는 예술미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하고, 가장 원만한 모습, 가장 영원한 모습의 표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목불은 마이니치 신문사에서 발간한 '태후의 불상' 시리즈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수작이다. 일본은 이 목불을 교류사 경내의 '영보전'에 국전히 모셔 두고 있다.

일본 국보 1호인 이 미륵불은 그러나, 오래전 신라에서 건너간 것이라는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9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과 비교하면 별 일란성 쌍둥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물론 일본은 이 같은 주장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 미륵불의 재질이 우리나라 토산의 적송(赤松)으로 밝혀지면서 더 이상 '일본 고유의 불상'이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게 됐다.

말마 저, 14세기 전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가 일본 도쿄에서 발견됐다. 이 불화는 특히, 현재 전 세계에 3점밖에 없는 '병황 무늬 배알'이 그려진 희귀본 수 없는, 살아 있는 예술미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하고, 가장 원만한 모습, 가장 영원한 모습의 표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목불은 마이니치 신문사에서 발간한 '태후의 불상' 시리즈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수작이다. 일본은 이 목불을 교류사 경내의 '영보전'에 국전히 모셔 두고 있다.

일본 국보 1호인 이 미륵불은 그러나, 오래전 신라에서 건너간 것이라는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9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과 비교하면 별 일란성 쌍둥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물론 일본은 이 같은 주장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 미륵불의 재질이 우리나라 토산의 적송(赤松)으로 밝혀지면서 더 이상 '일본 고유의 불상'이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게 됐다.

말마 저, 14세기 전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가 일본 도쿄에서 발견됐다. 이 불화는 특히, 현재 전 세계에 3점밖에 없는 '병황 무늬 배알'이 그려진 희귀본 수 없는, 살아 있는 예술미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하고, 가장 원만한 모습, 가장 영원한 모습의 표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인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1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